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북북북

1주차	일시	3월 17일 22 : 00 장소명 : 줌회의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장윤아(2531060)	O
		김아린(2531046)	O
		박민주(2631188)	O
		유금지(2531062)	O
윤소정(2531048)	O		
진도	도서명: 동물농장	진도페이지:	1p. ~ 76 p.
토론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div> <p style="text-align: center;">[좌측부터 윤소정, 유금지, 김아린, 박민주, 장윤아]</p> <p>1주차 독서토론에서는 동물농장의 전반부를 중심으로 작품의 배경과 주요 인물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p> <p>특히 윤아는 동물들이 인간의 억압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는 의견을 나누었다.</p> <p>민주는 이 과정에서 돼지들이 점차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은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역사적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p> <p>소정은 토론 중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작품 속 인물들이 실제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의 인물들과 어떻게 대응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였다.</p> <p>예를 들어, 특정 돼지 캐릭터가 권력을 독점하는 모습은 독재 체제를 떠올리게 하며 역사적 인물과의 유사성을 보여준다.</p> <p>또한 금지와 아린은 개들과 돼지들이 점점 인간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보인다는 점도 중요한 토론 주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p> <p>이는 권력을 가진 존재가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해석이 가능했다.</p> <p>또한 다음 차시에는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지와 현대 사회와의 연결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p>		

	일시	3 월 27 일 12 : 00 장소명 - 세미나실301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장윤아(2531060)	O
		김아린(2531046)	O
		박민주(2631188)	O
		유금지(2531062)	O
		윤소정(2531048)	O
	진도	도서명: 동물농장	진도페이지: 76p. ~ 144p.
2주차	토론 내용	<div data-bbox="525 607 1455 1048"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635 1070 1345 1104">[좌측부터 박민주, 윤소정, 차종석 교수님, 김아린, 장윤아]</p> <p data-bbox="491 1115 1489 1189">2주차 독서토론에서는 동물농장의 후반부를 중심으로 권력의 변화와 인간 사회와의 유사성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p> <p data-bbox="491 1200 1489 1317">윤아는 동물들의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성격,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상징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등장인물들이 단순한 동물이 아닌 특정 계층과 인간 군상을 대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 <p data-bbox="491 1328 1489 1485">또한 7가지 규칙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모습은 현실 사회의 개헌 과정과 유사하게 해석되었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수정하며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은 정치적 권력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p> <p data-bbox="491 1496 1489 1653">아린이의 의견에서는 동물들의 갑작스러운 자백 이후 도살로 이어지는 장면이 강조되었다. 특히 죽음을 예상하면서도 자백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집단 심리 혹은 스노우볼에 대한 왜곡된 충성심 때문일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p> <p data-bbox="491 1664 1489 1821">금지는 스노우볼이 계속 권력을 유지했다면 과연 부패하지 않았을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존스 시절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삶이 더 나은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수명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착취 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공유하였다.</p> <p data-bbox="491 1832 1489 2033">소정은 돼지들이 우유를 차지하는 장면을 ‘군림의 시작’으로 해석하며 인상 깊은 부분으로 꼽았다. 이는 메이저 영감이 꿈꾸었던 이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논의되었다. 또한 복서가 도살장으로 팔려가는 장면을 통해 ‘악의 평범성’과 연결 지어, 개인이 체제 속에서 어떻게 희생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어졌다.</p> <p data-bbox="491 2045 1489 2161">민주는 양들이 토론을 방해하는 장면을 통해 비판적 사고 없이 집단에 동조하는 태도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으로, 작품을 현실에 적용해 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p>	

3주차	일시	3월 31일 12 : 50 장소명 - 줌미팅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장윤아(2531060)	O
		김아린(2531046)	O
		박민주(2631188)	O
		유금지(2531062)	O
윤소정(2531048)	O		
진도	도서명: 동물농장	진도페이지: 144 p. ~ 끝.	



[좌측부터 윤소정 김아린 유금지 장윤아 박민주]

윤소정- 복서의 마지막, 복서는 어쩌면 사는 동안 행복했을까도 모른다. 체제에 대한 의심 없이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점에서 만족했을 것 같다. 그렇지만 그 행복은 조작된 믿음으로 쌓여진 것이니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윤아- 일부분 악한 부분을 눈치채도 합리화를 하며 악에 기여한 부분을 무시하려 노력했을 것.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과 연결하여 복서는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거대한 악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죄를 지은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복서가 자각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생긴다면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다.

유금지- 복서는 행복했을것, 세뇌를 당한 상태-> 세뇌를 당한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보다 공동체에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듯, 마지막에 자신이 죽을 때도 나플레옹이 동물농장을 위해 한 선택이라 합리화 하며 '자신'이 '공동체'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행복하게 죽었을듯

김아린-행복하지 않았을 것. 도살장에 끌려가는 와중에 박차고 나오려 했으나 이미 공동체를 위해 모든 힘을 소진 한 상태라 정작 본인을 살릴 수 없었음. 노후를 계획하던 것을 짐작해보아 원하던 미래가 아님을 알 수 있음

박민주-복서는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다만복서는 현대사회입장에서 노동자와 같은 신분을 지닌 동물로 너무 자신의 일만을 중요시하는 캐릭터였고 동물농장 관점에서는 정부의 무비판적이고 무관심한 시민이었기에 복서의 비극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함.

	일시	5월 6일 12 : 30 장소명 - 학술정보관 5층 그룹스터디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장윤아(2531060)	O
		김아린(2531046)	O
		박민주(2631188)	O
		유금지(2531062)	O
		윤소정(2531048)	O
4주차	진도	도서명: 동물농장	진도페이지: 전반적 검토
	토론 내용	<div data-bbox="525 607 1457 1236"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592 1256 1390 1290">[좌측부터 장윤아, 박민주, 차종석교수님, 유금지, 김아린, 윤소정]</p> <p data-bbox="493 1301 1490 1458">윤아: 나폴레옹의 변질 과정은 현대 사회 정치 구조에서 왜 권력의 분립이 필수적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가지면 부패하기 쉽고, 대중은 집단의 평화를 위해 부당함에 눈감으려는 속성이 있기에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p> <p data-bbox="493 1469 1490 1671">소정: 박정희 정권이 군사정변을 통해 경제발전을 크게 이뤄냈던 상황과, 이야기 속 돼지들이 인간을 몰아내고 동물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농장 발전을 이룬 모습이 겹쳐보임. 둘 다 결국 발전을 도모하고 끝내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선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으나, 그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력과 동물들을 생각하며 실패한 정부체제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됨.</p> <p data-bbox="493 1682 1490 1839">민주: 동물농장에서 말하고자 하는것은 정치적 무관심이다 정치적 무관심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더 많이 나타나며 그 양상도 다정보시대이기에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일부 주장만을 옹호하며 믿고싶은 정보만 믿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책 속 스켈러와 같다고 생각한다</p> <p data-bbox="493 1850 1490 2007">아린: 작품 속, 권력을 가진 집단은 정보를 독점하고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점차 무관심해진다. 현실 사회에서 국민의 적극성 또한 중요하지만 얼마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가 더 강조된다고 생각한다.</p> <p data-bbox="493 2018 1490 2096">금지 : 북한 독재 정권이 나폴레옹과 겹쳐보였다. 혁명없이 쭉 시간이 지난다면 점차 북한과 같은 양상을 지닐 것이다.</p>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장윤아 2531060	이번 독서클럽 활동은 한 권의 책을 여러 사람의 관점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인상 깊은 구절을 각자 꼽아보며,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다. 특히 동일한 텍스트를 읽고도 저마다 얻어가는 교훈이 다르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왔다. 특히 『동물농장』이라는 작품은 집필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 놀라웠다. 과거의 문학이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활자가 지닌 힘'을 다시금 깨닫게 된 뜻깊은 활동이었다.
	2	유금지 2531062	동물농장을 읽어보면서 독재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단순히 감시하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제하며 동물들의 무지함을 이용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 점을 확장시켜 무지도 죄인가라는 새로운 주제를 정해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책 속 상황을 현대에도 적용시키며 토론하며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주제를 얘기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식견이 확장되는 느낌도 들었다. 혼자 사고하는 것을 넘어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독서토론의 이점임을 다시 한 번 생각했다.
	3	2631188 박민주	동물농장은 평등을 외치며 시작된 혁명이 결국 또 다른 불평등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처음에는 자유를 꿈꾸던 동물들이 점점 권력에 지배당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특히 규칙이 조금씩 바뀌고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장면에서,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통해 나는 권력은 항상 감시되어야 하며, 평등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
	4	2531046 김아린	독서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한책을 성찰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특히 권력의 독점은 지배층의 무능함이나 탐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확증편향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이 깊게 다가왔다 비판적 사고 없이 상황을 수용하는 태도가 어떻게 독재의 뿌리가 되는지 깨달았고 경각심을 느꼈다 토론 과정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사례나 주장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고 나와 다른 시각을 공유하며 작품의 상징성을 다각도로 볼 수 있었다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이었다
	5	2531048 윤소정	동물농장을 읽고 독서클럽 활동을 하며 작품 속 권력의 변질과 인간 사회의 모습을 함께 토론할 수 있어 인상 깊었다. 각자의 해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내가 놓쳤던 의미들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힘도 기를 수 있었다. 혼자 읽을 때보다 더 깊이 있는 독서 경험이었다. 또한 조지 오웰이 풍자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를 현실 사회와 연결해보며 작품의 의미를 더욱 확장해 볼 수 있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표현력과 경청 태도도 함께 성장했다고 느꼈다. 이번 독서클럽 활동은 단순한 독서를 넘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준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